

#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일상과 사회의 의식개혁



김보영\*

학교 교사(敎舍)의 끝, 길고 좁은 골마루의 끝부분, 보일러실의 옆, 1층이라고 하지만 반 지하, 굳게 잠겨 있는 자물쇠, 출입문을 열면 학교도서관(교실 두 칸 정도 규모의 도서실이지만 학교도서관이라고 통칭하자.)은 모습을 드러낸다. 코를 자극하는 오래 된 책 냄새, 잔뜩 쌓인 먼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책, 훼손된 책, 여름 장맛비에 잠겼다가 말라서 부풀어 오른 책, 곰팡이 핀 책. 어떻게 분류해 놓은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서가배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좋은지 모를 곳. 이런 곳이 학교도서관의 주소였다. 그런 학교도서관을 새 단장하는 일이 대부분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몫이다. - 필자 주 -

## 1. 학교도서관 자체가 비정규직

현재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2원 4처 18부 16청이다. 그 중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요성을 인정받아 그 수장(首長)이 부총리의 직함을 함께 받는다.

2004년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은 26조 3천 여 억원이다. 2003년보다 1조 5천 억 원 정도 증가된 금액이며, 국민총생산(GNP) 대비 5%이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교육인적부장관이 부총리도 겸하고 있는 것이니 많이 섭섭하지는 않다.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학교도서관을 살펴보자. 각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도서관. 시도 교육청은 용역업체이고, 학교도서관은 그 업체에 소속되어 파견되는 노동자의 모습이다. 꾸준한 월급(예산)도 받지 못하고, 여차하면 쫓겨나야 하는 비정규직 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2003년부터 월급을 조금 늘려 주는 듯 하더니 2004년 들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공교육을 살려야겠다며 학교도서관에 주려던 100억을 뺏어간 상태다.

학교도서관이 그렇게도 만만히 보이는 것일까.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일이 어느 정도 진전된 것처럼 보이면 필요 없으니 쫓아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모습의 학교도서관 자체가 비정규직은 아닐까.

\*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도서관교육전공 5학기(kpy007@hanmail.net)



## 2. 비정규직 속의 비정규직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대우 받고 있지 못하니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도 대우 받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의 인적 자원 문제는 비단 비정규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만 2천 여 곳의 학교 중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사서교사가 260여 명(0.022%)에 불과하다는 수치로도 알 수 있지만 정규직 사서교사는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 받으니 여기서는 논외로 하자.

260여 명이 운영하는 학교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정규직 사서교사가 맡는다. 물론 비정규직 사서교사조차도 없는 학교가 아직은 태반이다. 부산광역시의 2003년도 현황을 보면 600개의 학교 중에 정규직 사서교사는 9명, 기간제 사서교사는 3명, 계약직 사서교사는 5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규직 사서교사는 말 할 것도 없고,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교사도 상대적으로 편찮다. 기간제이든 계약직이든 사서교사라는 명칭을 안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정말 문제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가는 일용직 사서교사이다.

사실 일용직 사서교사는 일종의 은어이다.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사람들이 스스로 듣기 좋게 만든 단어이다. 일용직 사서교사는 시도 교육청 소속도, 지역 교육청 소속도 아니다. 일용직 사서교사는 단위 학교의 행정실과 계약을 맺는다. 3개월, 4개월, 6개월 등 단기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짧은 기간에도 한 곳의 학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곳 이상의 학교에서 번갈아 가며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도서관 자체가 비정규직.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가 정규직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교사로 나뉘지 않고, 왜 모두가 정규직 사서교사이면 안되는 것인지, 정말 교육의 질 앞에 경제적 논리가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학교도서관의 슬픈 자화상이다.

## 3.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생활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행동반경은 유난히 좁다. 다른 교사의 수업시간에는 자료를 조직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대출업무와 반납업무를 해야 하니 다른 교원들과 엇갈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엇갈린 시간을 채울 수 있는 학교 내 비공식조직 활동도 지위가 확보되지 않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에게는 힘들고,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내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몇 개월 하면 체력이 바닥난다. 일종의 직업병이다.

필자는 건강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목감기 두

번 걸리고, 안구건조증으로 며칠 동안 안과에 다니고, 손목이 아파서 보건실에서 파스를 제법 지급받았다.

첫 번째 목감기는 이용 가치를 상실하고 오손되고 훼손된 자료를 폐기할 때 들여 마신 십년 넘게 묵은 먼지가 원인이었다. 두 번째 목감기는 교원 이용자와 26학급의 학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지도를 할 때 목을 많이 써서 그런 것이다. 안구건조증으로 안과를 다닌 이유는 온도와 습도 조절이 제대로 안되는 학교도서관에서 자료를 전산 입력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손목이 아픈 것도 역시 많은 시간을 컴퓨터 입력 작업을 했기 때문이며, 더불어 무거운 책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사서교사에게 주어지는 일은 대부분 학교도서관의 자료를 조직하는 것이다. 수기(手記)로 작성된 등록원부 속 자료와 실제 자료를 점검을 하면서 폐기할 자료를 정리하고, 각 시도 교육청의 DLS(Digital Library System)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작업을 한다. 최근 학교도서관에서는 KOLAS, MAE, 책꽂이 등 다른 도서관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보다 DL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DLS를 이용하면 분류와 목록작업을 거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전산작업이 끝나면 각종 라벨을 출력하고 출력한 라벨은 자료에 붙인다. 라벨 보호를 위해 라벨 위에 라벨키퍼를 붙이고, 그 자료를 서가에 재배열한다. 이처럼 비정규직 사서교사는 자료를 조직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등교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등에 자료의 대출·반납 업무를 한다.

감기 치료 주사 맞아가며, 안약 넣어가며 일한 대가로 받았던 월급은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평균 70만원(일급 2만 6천 여 원). 월급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2,510원이며,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20,080원, 월급은 567,260원이다. 물론 일용직 사서교사의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는 높지만 업무의 사회적 기대와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결코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4. 위로부터의 인식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사서교사가 독서교육을 담당하거나 도서관 활용 수업을 위해 도서관 자원을 재조직한다거나 밀접형 협동수업을 실시하는 일은 드물다. 실시한다고 해도 정규직 사서교사처럼 정당한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사의 수업 경감 등 다른 수단으로써 이뤄질 때도 있다. 재량활동시간에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보내고, 교사는 자신의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직접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밀접형 협동수업을 하는 것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학교도서관의 자료 조직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잘 조직된 자료는 학교도서관 목적 달성을 위한 기초이다. 자료 조직은 항상 이용자의 자료 이용과 그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료의 보존적 측면도 함께 생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를 조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료의 조직은 쉬운 일 혹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자료를 조직하는 일은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자료 조직만 되면 더 이상 도서관에서 할 일이 없으니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에서 취미로 책이나 읽으면 되는 한직이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학교도서관에는 자료만 있으면 그만이고, 거기에 시대적 대세를 따라 컴퓨터 수 십대만 갖춰 놓는다면 금상첨화라고들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올해 초 모 시 교육청에서 “보건복지부 자활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운영 근로자 신청”과 “노동부 직장 체험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직 모집”의 두 가지 공문으로 표출되었다. “보건복지부 자활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운영 근로자 신청”에 적혀 있던 운영 근로자의 활동내용은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도서대출 및 반납, 도서관리, 학생 독서지도, 청소 및 운영 관리)이었으며, 학력은 고졸 이상(중졸이상도 무난하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가능자)이라고 제시되어 있었다. 컴퓨터만 다루면 학교도서관 운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 직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직 모집”에서는 채용 대상을 휴학생, 졸업생, 야간대학생(만21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공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또한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업무를 대수롭게 본 탁상행정의 결과이다.

위로부터의 의식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속도가 느리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장관들, 그 중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비롯하여 각 시도 교육청장,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일선 단위 학교의 교장, 교감까지,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학교도서관에 대한 의식을 개혁시켜야 한다. 학교도서관이라고 하면 으레 시설과 장서를 떠올리는데, 그 시설과 장서를 훌륭히 활용하는 사서교사가 떠오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의식 개혁을 시킬 것인가. 우선은 마스크의 힘을 빌려야 한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서교사의 중요성에 대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신문사에서 특집 기사를 많이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하고, TV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비정규직 사서교사에 대해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 등 학교도서관을 이해하는 저명한 인사가 강연을 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장서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사서교사인데, 학교도서관은 인적 자원에 대한 기아(飢餓) 상태이며,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을 알리고, 더불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지위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의식 개혁은 긍정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많은 사회구성원의 의식이 개혁된다면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 될 것이고, 교사 임용 시험에서 사서교사의 모집인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고, 명실상부한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가 생길 것이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장학사의 활약과 비정규직 사서교사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동료교사들과의 협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5.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내·외부의 힘을 키우자.

“보건복지부 자활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운영 근로자 신청”, “노동부 직장 체험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직 모집”, “학교도서관 활성화 예산 100억 삭감” 등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목소리가 크고 애절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학교도서관과 관련되어 터져 나오는 일들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행동거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지 반성해 보자. 외부에서 볼 때 한가하게 책이나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가. 어렵겠지만, 단기간의 근무지만 비정규직 사서교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수치화 시켜보자. 근무일지도 써 보자. 그리고 학교장에게 보여 줘 보자. 이야기하자. 이런 일들이 단위 학교장의 의식개혁에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 “사서교사”라는 단어를 교장선생님의 머리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비정규직 사서교사는 자기 실력을 쌓아야 한다. 아직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에 대해 교사로서의 역할보다 사서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비정규직 사서교사도 독서교육, 정보이용교육 등을 훌륭히 해 낼 수 있고, 다른 교사와의 협동수업도 도서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더욱 사서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갈고 닦아야 한다. 비정규직 사서교사 자신의 내부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내부 힘의 기본은 학부과정의 커리큘럼으로부터 나온다. 세분화된 커리큘럼, 전문화된 커리큘럼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교수의 몫이다.

비정규직 사서교사는 단기간 근무하게 되므로 소리를 하나로 뭉치기가 힘들다. 그러나 뭉치기 힘들다고만 느끼지만 말고, 단일화된 협상 창구를 만들자.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모임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는 타조알로 바위를 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는데, 우는 소리가 들려야 할 것 아닌가.

물줄기가 모여 강을 이룬다. 자칫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록 주의해야 한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내·외부의 힘은 위로부터의 의식 개혁 시자에 자극을 줄 것이다. 자극을 주면 반응이 온다. 비정규직 사서교사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깨뜨릴 수 있다.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를 떠나 1만 2천여 학교도서관에서 힘차게 일하고 있을 사서교사를 생각해 본다.

“보건복지부 자활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운영 근로자 신청”과 “노동부 직장 체험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직 모집”의 두 가지 공문에 대해 그 부당함을 청와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표현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 메일을 받았다. 비록 대통령이 직접 보고 쓴 답 메일은 아니었지만, 이 공간을 빌어 답 메일을 소개한다.

